

3월의 기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시편 13편 5절~6절>



1. 2019년 기해년에도 계속해서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3.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는 말씀처럼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4.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 (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김정환,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이태원 내과의원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전쟁터에서 부르는 노래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독일에게 공격을 받아서 런던이 파괴됐고, 국민들은 낙심만해서 전쟁 할 용기가 사라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신문 기자들이 2차 대전의 영웅 몽고메리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태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독일이 이기겠습니까? 영국이 이기겠습니까?" 그러자 몽고메리 장군은 "독일이 이길 수도 있고 영국이 이길 수도 있는데요.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라는 정신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고,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연합군은 과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싸워 나갔고 결국 전쟁에 이겼던 것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긴다'는 것이 영웅한 대담 같지만 이 대답 속에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 하니 일천만 성도들이 생겨났고, 일천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찬송을 부르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원망, 불평, 탄식을 하는 대신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면 긍정적인 찬양을 부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밖에 나가서 굉장한 에너지가 되고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수록 더욱 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임해서서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02년 인도 푸네 성회"



가난과 질병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진 인도에 삶과 소망의 메시지가 전파됐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2002년 2월 6~7일 인도 푸네에서 열린 제6회 2002 푸네(6th PFI-National Conference 2002 Pune) 성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난과 질병에서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임을 강조했다. 인도오순절협의회 주관으로 SSPMS(Shri Shivaji Pripratry Military School)대학 운동장에서 개최된 당시 성회는 연인원 10만여명

이 참석, 그리스도의 소망을 간구했다.

첫날 강단에 나온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그리스도만이 가난과 질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라고 강조하고 폐병으로 죽음 직전에서 치유 받은 자신의 삶을 간증했다. 조목사는 가난과 질병에 찌든 청중에게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며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설교했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참

석자들은 조목사의 설교에 서투른 '아멘'으로 화답했으며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회가 끝난 직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로 은혜를 나눴다.

당시 성회를 주관한 인도 오순절협의회 회장 아브라함 목사는 "성회 직전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힌두교 교인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참석했다"며 "당시 성회가 단순히 기독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도 집회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당시 성회는 힌두교와 카스트제도가 지배하는 인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사회적 계급 차이로 새로운 인생을 꿈꾸지 못하는 대부분의 빈민층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소망과 도전정신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됐다.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12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축복성회"



영적인 사막 중동 한가운데 생명의 샘물이 넘쳐흘렀다. 인도오순절협의회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아부다비 축복성회가 '평화의 축제 (Festival of Peace)'라는 부제로 2012년 2월 16~17일 아부다비 크리켓스타디움에서 열렸다. 경제 개방화라는 자유속에서도 강력한 이슬람 체계를 갖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린 당시 성회는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인도인과 외국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도 같았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성회가 시작됐고, 인도 오순절협의회 회장 란짓 아브라함 목사의 소개로 등단한 조용기 목사는 움츠려있던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누구든지 그 분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원수 마귀의 저주는 사라지고 질병은 치료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용기 목사는 "아브라함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간 것처럼 분명한 비전을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원리는 교회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성장을 원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억압된 환경으로 인해 닦쳐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했다.

아랍권 내 외국인들과 현지인들은 조용기 목사가 50여 년 동안 경험했던 생생한 체험담 등의 말씀을 숨을 죽이고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 현지 성도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열린 당시 성회는 아부다비 인근 두바이 뿐만 아니라 인근 아랍권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아부다비 축복성회는 중동선교의 가능성을 넘어 추수의 시기가 오고 있음을 알렷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4~6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아담이 죄를 지은 후, 모든 사람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득한 세상에서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찔한 것입니다.

1.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풀이 많지 아니하기에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을 찾아서 산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평평한 곳을 지날 때도 있고 가파르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평탄한 길을 지날 때가 있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나가게 합니까?” 물론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키울 때 염소를 함께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은 배부르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늑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 부족으로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도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서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염소를 같이 키우게 되면 염소가 양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양을 들이받기 때문에 양이 염소를 피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C. Stanley) 목사님은 “우리는 산

꼭대기 경험보다 골짜기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고난이라는 낮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도 고난을 이겨낼 때 마다가 생겨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편을 들고 기도하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에게에는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2.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가족들은 부산으로 이사 가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려면 눈두렁과 산비탈을 걸어야 하는데 숲이 우거지고 공동묘지가 있어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올 때면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캄캄해서 간이 벌렁거려 너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때가 되면 할머니님이 산꼭대기 위에서 “용기야! 오냐?” 그렇게 고향을 치셨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용기가 생겨나요. 이렇게 사람이 함께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할아버지와 땅과 세계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 비행기를 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기상이 좋지 않아서 제가 탄 비행기가 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이 구절이 떠올라서 입술로 고백했더니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요 10:11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

리를 구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다른 것은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3.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것은 골짜기는 머무르기 위한 처소가 아니고 통과하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나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골짜기를 통과하여 마침내 푸른 풀밭, 설 만한 물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는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고 푸른 풀밭,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푸른 풀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용서와 의가 있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이 있고 치료와 건강이 있으며 아브라함의 복과 행동함이 있고, 부활과 영생,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J. Wesley) 목사님은 88세의 나이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남아 있던 온 힘을 다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널을 나와서 뒤를 돌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터널이 바로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걸어서는 넘기 힘든 높고 험준한 산을 터널을 통해 직통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어둡고 캄캄한 터널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터널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산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터널을 지날 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시어 복된 미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 ‘신년연합축복성회’서 성령 충만 새해 간구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설교, 제자 교회 성도 한자리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제자들이 시무하는 형제교회의 신년연합축복성회가 지난 1월 29일 오산리최자실기념공식기도원 대성전에서 개최됐다.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새해를 맞아 기도로 주께 헌신하는 한 해를 약속했다.

기도원 대성전에 앉을 자리가 없어 할렐루야성전까지 개방한 이날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롬 4:17-22)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감각에 의지해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 안에서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다”면서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생각 꿈 믿음 말을 통해 기적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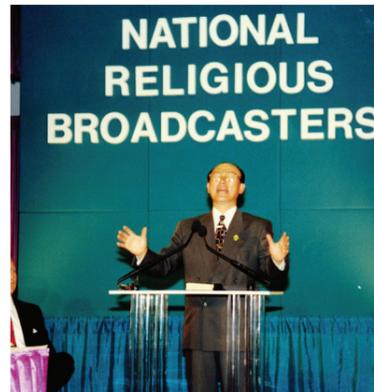
하시는 하나님을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를 붙잡고 나아갔던 천막교회 개척시절을 이야기하며 “절망에 처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기에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한다. 그 때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다”고 성도들에게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또 “생각 꿈 믿음 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바로미터(척도)”라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곁에 있

기 때문이다”라며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한해가 되자”고 격려했다.

신년 연합 축복성회에 참석한 여러 목사들과 성도들은 나라와 지도자, 한국교회와 목회자, 세계선교와 선교사, 원로목사의 목회 사역 등을 위해 특별 기도를 인도해 참석자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산리최자실기도원에서 매일 드려지는 네 차례의 예배는 1부 경건의 시간 2부 신유의 시간 3부 성령대망의 시간 4부 문제 해결의 시간으로 마련돼 성도들이 문제와 소망을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했다. 기도원을 찾아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새해 희망찬 꿈과 비전을 세웠다.



1993년 2월 미국 LA컨벤션센터



2002년 2월 인도 푸네 성회



2017년 2월 태국성회